

보험회사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재무제표 전환의 실증연구

Empirical Study for Financial Statements transfer by K-IFRS on the Insurance Company

김종원
서원대학교 경영대학

Jong-Won Kim(jwkim627@hanmail.net)

요약

보험회계는 보험정보의 이용자가 사정을 잘 알고서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이다.

한국에서는 2011년부터 보험계약의 회계에 관해서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서를 적용함에 따라 공정가치 회계가 보험회사의 재무제표라는 수단을 통하여 보험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본 연구는 과거 보험회계기준과 현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상장회사의 재무제표를 비교하여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대출채권, 보험계약채무, 자산총액, 부채총액, 자본총액 등 5개 항목에 대해 상장회사 12 보험회사를 표본으로 전환일 기준으로 대응표본검정을 분석한 결과 대출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항목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전환일을 기준으로 책임준비금(보험계약채무), 자산, 부채 및 자본이 금융소비자에게 대응 차이가 커서 정보이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본 연구는 표본이 12개이고, 공시된 자료에만 의존한 한계점이 있어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보험회계의 국제화에 대한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실무에서 재무제표 작성과 이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 중심어 : | 보험회계 | 회계기준 변경 | 재무제표 |

Abstract

Insurance accounting is the process of identifying, measuring, and communicating economic information to permit informed judgements and decisions by users of the insurance information.

With the Korean-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K-IFRS) on accounting for insurance contracts to be finalized by 2011 in Korea, the fair value accounting is expected to greatly affect the insurance industry in terms of insurance company' financial statements. This research analyzes the effect of financial statement as K-IFRS on the insurance accounting by comparing the financial statements of the listed company using past insurance accounting standard and the current K-IFRS standard.

We analyzed the matched pair sample at loan amount, insurance contract debt, total assets amount, total debts amount, total capital amount in the financial statements of the listed 12 insurance company. We found that insurance contract debt, total assets amount, total debts amount, total capital amount are difference before and after K-IFRS applied insurance company.

■ keyword : | Insurance Accounting | Accounting Change | Financial Statement |

I. 서론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손해보험협회 및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의 합계보험료는 2010년도 기준으로 114,422백만 달러로 세계보험시장에서 9위에 위치하고 있다. 부분별로는 생명보험은 보험료 71,131 백만 달러로 세계 9위, 그리고 손해보험은 보험료 43,291 백만 달러로 세계10위의 상위시장이다. 보험료 규모는 2012.3.31. 현재 생명보험의 보험료가 88조 5,879억원, 손해보험의 보험료가 57조 9,955억원으로 우리나라의 총보험료는 146조 5,834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산업에는 국내 진출한 외국사를 포함하여 손해보험회사가 31개사, 생명보험회사가 24개사가 영업을 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2011회기부터 국제회계가 새로이 적용되었는데 도입과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2004년 3월 국제재무보고기준 제4호 보험계약(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4. Insurance Contracts)의 국제보험회계기준을 제정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회계기준원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104호(K-IFRS 1004)를 2007년 11월 23일 제정하여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고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4월1일 시행)부터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준서가 일반회계기준(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GAAP)이 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은 단일기준(조문식)이 아닌 개별 계정과목 및 주제별로 각각의 기준서가 있으며, 이 중 IFRS 4(보험계약¹⁾), IAS 39(금융상품의 인식 및 측정) 등 몇몇 기준서가 국내 보험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보험업의 경우 다른 금융업과 달리 책임준비금이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평가방식을 규정한 IFRS 4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보험회계체계는 감독당국에 제출할 재무제표 작성에 적

용할 회계기준으로서 감독회계기준(statutory accounting principles; SAP)등을 별도로 운영하는 형태와 일반회계기준을 모든 경우에 적용하는 형태로 분류된다. 이 두가지의 구분은 투자정보와 지급능력정보 중 어느 정보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회계는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적용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감독회계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보험업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통일성과 객관성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였다.

회계기준의 변경은 기업경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보험업은 보험계약여부에 따라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서의 적용이 달라지고 회계처리방법도 달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보험 소비자들은 혼란을 가질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연구배경을 바탕으로 상장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국채택 국제재무회계 도입에 따른 재무제표의 전환과 관련하여 재무제표의 전환에 따른 차이분석을 통하여 전환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전환기준일인 2010. 4. 1자를 기준으로 2009회기의 2010. 3. 31자와 2010회기의 2010. 4. 1자의 재무제표의 계정항목비교 및 금액비교 통하여 전환의 적정성을 비교 연구하며, 또한 매출채권, 책임준비금, 자산, 부채, 자본 등 주요 5개 계정과목 금액에 대하여 전환 전후를 대응표본검증을 이용하여 전환의 적정성을 실증 검증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보험회계(insurance accounting)

보험회계(insurance accounting)는 보험계약(insurance contracts)의 취득 및 이와 관련된 활동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경제적 현상을 식별, 기록, 정리, 보고, 분석하는 절차이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서 제1104호

1) IFRS 4에서 정한 보험계약은 계약당사자 일방이 불확실한 장래 사건으로 인해 계약상대방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중요한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이다. 이 기준서에서는 보험계약 자체의 정의 및 인식과 측정 등을 다루나, 보험회계는 이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경제적 현상을 포함한다(조석희, 2012). 보험회계연구회(2005)에서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행하는 일반적인 재무보고행위라고 정의하였다.

보험회계의 특징은 이론적 특성, 경영적 특성 및 재무 보고적 특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보험회계는 감독회계원칙(statutory accounting principles: SAP)정보를 제공하는 지급여력과 관련된 정보가 일반목적회계(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GAAP)보다 중요시 한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보다는 재무상태표가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경영적으로 보면 보험료수입은 수익이라기보다는 공공부채 성격을 지니고 있어 재원을 관리하는 보험업은 공공성과 사회성을 강조되어야 하므로 보수적인 성향의 회계처리를 하는 특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재무 보고적으로 보면 원가가 일반 기업과 달리 사후에 확정되고, 보험 상품의 다차원 구조, 보험 영업과 투자 영업의 분리 및 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당제도가 있어 일반목적 회계와는 다르게 회계 처리하는 부분도 발생한다.

우리나라 보험회계의 변천과정을 보면 1962년 1월부터 보험업법 및 보험업법시행령이 시행되면서 1979년 12월 31일까지 재무부 결산지침에 따라 보험업의 결산을 수행하였다. 1980년 1월 1일부터 1988년 3월 31일까지 보험회사 표준회계 규정 및 재무제표 준칙에 따라 보험회계 결산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최초로 규정화하였다. 그 이후 1998년 3월 31일에 생보 및 손보 회계 규정으로 기업회계기준 준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1998년 4월 1일부터 보험업 감독규정이 금융감독원 출범으로 통합되고 1998년 12월 12일부터 보험업 회계 처리준칙이 제정되어 재무제표를 GAAP와 SAP에 의해 각각 작성하였다. 2006년부터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으로 금융업의 일반목적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적용하였으며 2011년 4월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2 국제보험회계기준과 관련된 선행연구

국제보험회계기준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Jonathan(2004)은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은 자본 및 지급여력, 상품설계, 부채를 대응시키기 위한 자산의 선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Jame J. Schiro(2004)는 IASB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정가치에 기반을 둔 접근방식이 역사적 원가방식에 기초한 것보다 우월하지만 국제회계기준 심의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Lothar Meyer(2004)는 현행 보험사에 대한 회계제도 는 이연매칭법(deferral and matching principle)에 기반을 두지만 국제보험회계기준안은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가치의 변화들을 인식하는 자산부채 측정법(asset liability measurement approach)를 기반으로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Gerard de La Martiniere(2005)는 유럽에서는 보험사의 투명성 증대를 위해 국제보험회계기준을 지지하지만 지분 불일치(equity mismatch)와 현금가치 하한(deposit floor)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보험회계연구회(2005)는 보험회계기준의 구성방향으로 재무회계와 감독회계의 조화라는 주제로 연구하였다. 이들은 보험회계기준과 보험감독기준(회계적 측면)을 일원화하든지, 아니면 분리하는 2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장희(2007)는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을 연구하였다. 그는 국제보험회계기준 도입으로 책임준비금의 시가평가로 가상 보험회사들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비교분석하였는데, 당기순이익의 변동폭이 크게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또 그는 국제보험회계기준 도입시 이자율 변동이 보험부채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가상의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발행년도법과 평가년도법으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평가년도법에는 이자율의 변동에 따른 보험부채를 일시에 인식하여 당기순이익이 크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이장희, 2009).

심태섭·최원석(2010)은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해 IFRS도입에 따른 세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

는데, 책임준비금에 대하여 자산부채법, 영업보험료방식 및 평가연도법이 감독목적 회계에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비상위험준비금은 K-IFRS에서는 계상을 금지하고 있으나, 보험감독당국은 보험회사에 계속적으로 적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윤영준(2011)은 국제보험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에 대해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방안의 주요내용을 사례 분석하였는데, 장래요구자본의 대응치로 보험금을 사용하여 시장가치마진을 계산한 후 책임준비금 공정가치 산출금액과 법정준비금을 비교하였다. 샘플계약으로 회사의 모든 현금흐름을 대표하기 어렵고, 보험부채의 적정성 평가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오창수(2011)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보험부채 전환액과 기존 보험부채를 비교하여 보험상품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건강보험상품의 경우 국제회계기준하의 준비금이 현행보다 높게 나타났고, 국제회계기준 도입 시 감독회계와 일반회계의 관계를 정립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보험회계의 선행연구들은 국제회계기준과 관련하여 제도의 도입에 따른 계정과목 및 평가방법 등의 영향과 효과를 등을 이론적으로 또는 가상적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비하여 본 연구는 보험산업의 국제회계도입과 관련하여 보험회사들이 전환한 주요 계정과목의 실제자료를 사용하여 전환결과를 실증 연구하는 데 연구의 차이가 있다.

III. 재무제표 전환결과 실증분석

한국채택 보험회계를 적용하는 보험회사들은 2010년 4월 1일을 전환일로 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 이전과 전환 이후의 결과를 실증 분석하는 연구 대상보험회사는 상장보험회사로 2010. 4. 1 현재 국내에 상장되어 보험회사는 12개인데 이들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이 중에서 손해보험회사는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

대해상,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코리안리 등 9개사이며, 그리고 생명보험회사는 동양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3개사이다. 재무제표 등 연구에 필요한 자료와 통계는 금융감독원과 NICE신용평가(주)의 자료와 통계를 이용하였다.

3.1 연구가설

보험회사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기존의 회계방식에 따른 재무제표를 전환함에 있어서 새로운 회계기준을 충분이 이해하고 전환실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전환 이전과 이후는 계정금액 규모의 차이가 없을 것을 사료되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구분	내용
가설 1	회계기준변경에 따른 매출채권의 전환은 이전과 이후가 차이가 없을 것이다
가설 2	회계기준변경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전환은 이전과 이후가 차이가 없을 것이다
가설 3	회계기준변경에 따른 자산의 전환은 이전과 이후가 차이가 없을 것이다
가설 4	회계기준변경에 따른 부채의 전환은 이전과 이후가 차이가 없을 것이다
가설 5	회계기준변경에 따른 자본의 전환은 이전과 이후가 차이가 없을 것이다

3.2 재무제표 양식 비교

3.2.1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전환 전에는 자산이 7항목에서 전환 후에는 13항목으로 6개 항목이 더 늘어났으며, 부채도 4개에서 10개로 6항목이 늘어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금 및 예치금에 포함되어 있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유가증권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세분화되었다. 기존의 대출채권을 대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으로 변경되었으며, 기존에 없던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관계·종속기업투자 무형자산, 당기법인세자산을 나타내도록 되어 있다.

부채는 책임준비금을 보험계약부채에 포함시키고,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 위험회피목적파

생상품부채, 당기법인세부채, 이연법인세부채, 충당부채를 추가로 나타내도록 하였다. 이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재무상태표 양식 비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자산	I. 현금및예치금 II. 유가증권 III. 대출채권 IV. 투자부동산 V. 유형자산 VI. 기타자산 VII. 특별계정자산	I. 현금및현금성자산 II.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III. 매도가능금융자산 IV. 만기보유금융자산 V. 대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VI.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VII. 관계종속기업투자 VIII. 투자부동산 IX. 유형자산 X. 무형자산 XI. 당기법인세자산 XII. 기타자산 XIII. 특별계정자산
부채	I. 책임준비금 II. 계약자지분조정 III. 기타부채 IV. 특별계정부채	I. 보험계약부채 II. 계약자지분조정 III.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IV. 기타금융부채 V.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VI. 당기법인세부채 VII. 이연법인세부채 VIII. 충당부채 IX. 기타부채 X. 특별계정부채

상장사 12개 보험사를 실증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1개 기업만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예치금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한 기업이 3개, 현금 및 예치금으로 보고한 기업이 8개 이었다.

유가증권과 관련해서는 전한 이전처럼 유가증권으로 사용한 기업이 1개, 금융자산으로 표시하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기업이 3개, 나머지 8개 기업은 구분 없이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표시하였다.

대출채권은 3개 회사만 별도로 표시하고, 3개 회사는 대출채권과 기타수취채권을 나누어 표시하였다. 4개 회사는 대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으로 공시하였으며, 2개 회사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공시하였다.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자산으로 공시한 회사가 10개 이고, 관계종속기업투자를 공시한 회사가 7개, 관계기

업투자와 종속기업투자로 나눠 공시한 회사가 1개, 종속기업투자로 공시한 회사가 1개 이었다. 자산에 대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회사별 자산의 항목 비교

항목	회사											
	1	2	3	4	5	6	7	8	9	10	11	12
현금및 현금성자산	o	o				o				o		
예치금	o											
현금및 예치금			o	o	o		o	o	o		o	o
금융자산						o			o	o		
유가증권	o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o	o	o	o	o	o	o	o	o	o	o
매도가능금융자산		o	o	o	o	o	o	o	o	o	o	o
만기보유금융자산		o	o	o	o	o	o	o	o	o	o	o
대출채권	o			o		o			o	o	o	
기타수취채권						o			o	o		
대여금및수취채권					o		o					
대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o	o						o			o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자산	o	o	o			o	o	o	o	o	o	o
관계종속기업투자		o	o			o	o	o	o	o		
관계기업투자	o											
종속기업투자	o											o
무형자산	o	o	o	o		o	o	o	o	o	o	o
미상각신계약비			o	o					o	o		
구성채권				o						o		
재보험자산				o	o	o	o	o	o		o	o
보험미수금				o								
당기법인세자산	o	o	o									o
미상각신계약비												o
이연신계약비					o	o						
이연법인세자산			o								o	
선급법인세				o	o						o	
기타금융자산	o											

부채를 살펴보면 책임준비금으로 표시한 회사가 5개, 보험계약부채로 표시한 회사가 7개이었다. 금융부채를 나타낸 회사가 3개, 차입부채를 나타낸 회사가 3개 이었으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표시한 회사는 6개이었다.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로 나타낸 회사도 8개, 지급채무로 나타낸 회사는 2개이었다.

법인세와 관련하여 당기법인세부채로 표시한 회사가 7개, 미지급법인세로 표시한 회사가 2개, 이연법인세부채로 나타낸 회사는 11개이었다. 그리고 확정급여채무는 3개 회사, 보험미지급금은 3개 회사, 퇴직급여부채는 1개 회사, 충당부채는 7개 회사가 표시하였다. 이 부채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회사별 부채의 항목 비교

항목 \ 회사	1	2	3	4	5	6	7	8	9	10	11	12
책임준비금			o		o		o	o				o
보험계약부채	o	o		o		o			o	o	o	
금융부채						o			o	o		
차입부채				o	o				o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o				o	o	o		o	o	
기타금융부채		o				o			o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부채	o	o	o				o	o	o	o	o	
지급채무								o				o
당기법인세부채	o	o	o				o	o	o			o
미지급법인세						o				o		
이연법인세부채	o	o	o	o	o	o	o	o	o	o		o
확정급여채무				o		o			o			
보험미지급금				o								
퇴직급여부채	o				o		o	o		o		o
복구충당부채					o							
충당부채	o	o	o			o	o	o	o	o		

3.2.2.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양식도 전환이전에는 9개 항목에서 전환 이후에는 10개 항목으로 1개 늘어났으며, 전환전의 영업의 수익과 비용은 없어지고,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관련손익,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당기총포괄이익을 나타내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손익계산서 항목을 회사별로 비교해 보면 영업외 손익을 표시한 회사가 1개, 영업외수익과 비용으로 각각 표시한 회사가 3개이었으며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관련손익을 표시한 회사는 2개, 법인세 차감후기타포괄손익과 당기총포괄이익을 11개 회사가 표시하였고, 주당 이익은 10개 회사가 표시하였다. 손익과 관련된 회사별

비교를 정리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4. 손익계산서 양식 비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수익 비용	I. 영업수익 II. 영업비용 III. 영업이익 IV. 영업외수익 V. 영업외비용 VI. 법인세차감전 손익 VII. 법인세비용 VIII. 당기순이익 IX. 주당이익	I. 영업수익 II. 영업비용 III. 영업이익 IV.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관련손익 V. 법인세차감전손익 VI. 법인세비용 VII. 당기순이익 VIII.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IX. 당기총포괄이익 X. 주당이익

표 5. 회사별 손익항목의 비교

항목 \ 회사	1	2	3	4	5	6	7	8	9	10	11	12
영업외손익	o											
영업외수익					o		o					o
영업외비용					o		o					o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관련손익		o				o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o	o	o	o	o	o	o		o	o	o	o
당기총포괄이익	o	o	o	o	o	o	o		o	o	o	o
주당이익	o	o		o	o	o	o	o	o	o	o	o

3.3. 재무제표 금액 비교

2010년 4월 1일을 전환일로 해서 2010년 3월 31일과 4월 1일간 보험회사 12개 회사의 매출채권, 책임준비금, 자산, 부채, 자본 등 주요 계정과목을 비교한 내용은 다음의 [표 6]과 같다. 우선 대출채권을 살펴보면 대출채권이 대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으로 합쳐진 후가 1개 회사를 제외한 모든 회사가 많았다. 하나의 회사는 도리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서 정보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었다. 또 책임준비금은 보험계약채무와 동일하게 생각하여 비교해 본 결과 12개 회사 모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재무상태를 살펴본 결과 자산은 12개 회사 모두 증가하였고, 부채는 1개 회사만 감소하고 11개 회사가 증가하였으며, 자본은 2개 회사만 감소하였지, 10개 회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회사별 주요 항목의 금액비교

(단위: 백만원)

항목 회사	일자	대출채권	책임준비금	자산	부채	자본
1	3/31	12,536,038	40,469,502	58,997,753	3,317,845	5,679,908
	4/1	12,588,767	40,492,483	59,781,265	53,718,121	6,063,144
	차이	52,729	22,981	783,512	400,276	383,236
2	3/31	24,530,227	92,024,918	133,045,073	120,912,253	12,132,820
	4/1	28,493,186	92,278,967	133,657,487	121,293,202	12,364,285
	차이	3,962,959	254,049	612,414	380,949	231,465
3	3/31	2,352,467	7,833,497	11,086,497	10,065,839	1,021,116
	4/1	2,706,599	7,836,952	11,099,257	10,074,862	1,024,395
	차이	354,132	3,455	12,760	9,023	3,279
4	3/31	344,084	1,612,658	2,318,279	2,098,641	219,638
	4/1	345,139	1,717,033	2,396,626	2,183,732	212,894
	차이	1,055	104,375	78,347	85,091	- 6,744
5	3/31	682,940	3,341,892	4,113,571	3,811,089	302,482
	4/1	952,750	3,665,262	4,399,886	4,108,883	291,003
	차이	269,810	323,370	286,315	297,794	- 11,479
6	3/31	3,036,088	7,160,191	9,746,449	8,958,271	788,178
	4/1	566,464	7,689,674	10,265,365	9,131,371	1,133,994
	차이	- 2,469,624	529,483	518,916	173,100	345,816
7	3/31	2,149,732	8,323,692	10,599,660	9,426,192	1,173,468
	4/1	2,539,456	8,725,754	11,293,945	9,555,690	1,738,255
	차이	389,724	402,062	694,285	129,498	564,787
8	3/31	790,244	4,696,950	6,034,989	5,355,015	679,974
	4/1	1,015,315	4,950,433	6,287,279	5,510,433	776,845
	차이	225,071	253,483	252,290	155,418	96,871
9	3/31	5,610,366	18,085,463	26,655,886	21,715,558	4,940,328
	4/1	6,421,603	18,952,702	27,391,875	21,659,533	5,732,342
	차이	811,237	867,239	735,989	- 56,025	792,014
10	3/31	2,348,346	8,382,408	11,093,772	10,027,845	1,065,928
	4/1	2,865,904	8,969,216	11,633,719	10,363,001	1,270,718
	차이	517,558	586,808	539,947	335,156	204,790
11	3/31	174,403	1,976,523	2,361,295	2,221,047	140,248
	4/1	174,962	2,139,611	2,541,111	2,380,623	160,488
	차이	559	163,088	179,816	159,576	20,240
12	3/31	4,313	1,725,206	4,327,214	3,666,744	660,470
	4/1	1,478,518	2,714,047	5,281,069	4,281,452	999,616
	차이	1,474,205	988,841	953,855	614,708	339,146

표 7. 대응표본검정

	대응차			t값	p값 (양쪽)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표준오차		
대출채권(전)- 대출채권(후)	-465,784.58	1,436,644.01	414,723.40	-1.123	.285
책임준비금(전)-보험계약부채(후)	-330,812.58	329,470.44	95,109.92	-3.478	.005
자산(전)- 자산(후)	-470,703.83	302,838.93	87,422.07	-5.384	.000
부채(전)- 부채(후)	-223,713.67	188,404.64	54,387.73	-4.113	.002
자본(전)- 자본(후)	-246,951.75	252,518.90	72,895.93	-3.388	.006

3.4. 대응표본 검정 결과

2010년 3월 31일(전환 이전)과 4월 1일(전환 이후)의 매출채권, 책임준비금, 자산, 부채, 자본 등 5항목에 대한 대응표본검정을 실시하였다. 5항목 중 매출채권을 제외한 4개 항목이 유의확률 0.01에서 차이가 유의적임을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매출채권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서 가설 1번은 기각되었으며 그밖에 책임준비금, 자산, 부채, 자본과 관련된 가설 1부터 4번까지는 전환 전후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전환 전후의 금액규모 차이가 없다는 가설 2번부터 5번까지가 기각되었다. 이는 전환일을 기준으로 책임준비금(보험계약채무), 자산, 부채 및 자본이 정보이용자에게 대응 차이가 커서 정보이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표 7]과 같다.

IV. 결론

보험회계는 보험계약의 발행과 취득 및 이와 관련된 활동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경제적 현상을 식별, 기록, 정리, 보고, 분석하는 절차이다. 우리나라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회계는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적용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감독회계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서 보험업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통일성과 객관성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였다.

회계기준의 변경은 기업경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보험업은 보험계약여부에 따라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서의 적용이 달라지므로 회계처리방법도 달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발생한다.

본 연구는 2010년도 회계연도 보험업계 재무제표와 2011년도 보험업계 재무제표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연구하였다. 연구 표본으로는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중에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만으로 하고 2009회기의 2010. 3. 31자와 2010회기의

2010. 4. 1자 재무제표를 계정항목비교 및 금액비교 통하여 전환의 적정을 비교 연구하였고, 매출채권, 책임준비금, 자산, 부채, 자본 등 주요 5개 계정과목 금액에 대하여 전환 전후를 대응표본검정을 이용하여 실증 검증하였다.

재무제표 항목비교에서는 일부 보험회사들이 새로운 항목을 사용하고 있지 않거나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불완전한 전환은 소비자가 새로운 한국채택 국제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으며 또한 보험회사간 항목비교도 어렵게 할 수 있다.

매출채권, 보험계약채무, 자산총액, 부채총액, 자본총액의 5개 항목에 대해 상장회사 12개 보험회사를 표본으로 대응표본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매출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항목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계정과목의 항목전환이 불완전한 부분이 있으며, 또한 주요 계정과목 금액이 전환 전후에 대응차이가 있음이 나타나 보험회사의 국제회계도입에 따른 새로운 회계 기준에 따른 전환은 불완전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이용의 유의하여야 하며, 또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 시에 사전에 충분한 교육 및 실습, 그리고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확인 등의 방안에 대한 향후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표본이 12개이고, 공시된 자료에만 의존한 한계점이 있어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보험회계의 국제화에 대한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실무에서 재무제표의 작성과 이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참고 문헌

- [1] 보험회계연구회, “보험회계기준의 구성방향: 보험회계-재무회계와 감독회계의 조화”, 2005 한국회

계학회 학술발표대회 workshop자료, pp.1-21, 2005.

[2] 심태섭, 최원석,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보험 준비금 관련 세제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법인 세법 개정방안에 관한 심포지엄, pp.185-229, 2010.

[3] 월간손해보험, 10월호, 11월호, 2008.

[4] 윤영준, “국제보험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책임준 비금평가에 관한 연구-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계리학연구, 제3권, 제1호, pp.29-58, 2011

[5] 오창수, “국제회계기준도입에 따른 보험상품의 영향분석”, 리스크 관리연구, 제22권, 제2호, pp.159-188, 2011

[6] 이장희,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대한경영학회 추계학 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pp.21-49, 2007.

[7] 이장희, “국제보험회계기준 도입시 이자율 변동 이 보험부채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2권, 제1호, pp.105-122, 2009.

[8] 장지영,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법인세 개정 방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0, No.10, pp.334-350, 2010.

[9] 조석희, *국제회계기준(IFRS)하에서의 보험회계*, (주)신영사, 2012.

[10] Gerard de Martiniere, *New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Insurance*, The Geneva Papers, pp.108-113, 2005.
http://www.knia.or.kr/ClipFile/ins_mag/0810/0002.pdf, http://www.knia.or.kr/homepage/library/publish_data.asp.

[11] IFRS 4 Insurance Contracts(제1104호 보험계약), 2007.

[12]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4 Insurance Contracts*, 2004.

[13] J. J. Schiro, “Proposed Changes in Insurance Accounting Rules,” The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 Vol.29, No.1, pp.75-77, 2004(1).

[14] J. Bloomer, “Impact of Insurance Accounting on Business Reality and financial Stability,” The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 Vol.29, No.1, pp.56-62, 2004(1).

[15] L. Meyer, “The Impact of Insurance Accounting on Business Reality and Financial Stability,” The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 Vol.29, No.1, pp.72-74, 2004(1).

저 자 소 개

김 종 원(Jong-Won Kim)

정회원



- 1986년 2월 : 중앙대 경영대학 (경영학사)
- 1998년 1월 : University of Hartford(보험석사)
- 2005년 2월 : 성균관대학교(경영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서원대학교 경영대학 조교수
 - CPCU(미국 공인 손해보험 인수심사사)
 - FLMI(미국 생명보험 인수심사사)
- <관심분야> : 경영일반, 보험/리스크관리